

5·18 관련 11개 조례→1개로 '통합조례안' 통과

市의회 본회의... '정신계승위' 구성·관계기관 정책협의회도 기존 2개 조례 존치... 정다운위원장 "묘지 안장 기준 등 속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11개 조례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조례안이 29일 광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다운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이하 5·18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에서 11개 조례를 1개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1개 조례를 통·폐합한 배경에 대해 정다운 위원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니 동안 특정 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13개의 조례가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각 다른 시점에서 만들어진 13개 조례가 상호 간 내용과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충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가의 조기 계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하기로 했다.

5·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기념 사업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해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위원회는 5월 단체 추천 4명, 시민사회 추천 4명, 광주시·시의회·교육감·구청장 추천자 등 총 30명 이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5·18선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비할 근거도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5·18이 45주년을 앞두고 전 환경을 맞이한 지금 흐트러진 조례를 거칠게라도 통합하고 체계를 갖춰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일빌딩 5·18 기획전 광주시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245에서 80년 5·18 당시 작성된 일기 등을 선보이는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29일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김예리 기자

이어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공자 지원, 구묘역의 정명, 안장 기준과 같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해야 할 쟁점 사안이 다수 남아있다"며 "이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속의를 통한 보완을 거듭해 5·18통합조례안의 완결

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측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통합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면서도 "구묘역 안장 범위를 5·18 및 관련 진상 규명 등 활동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어 향후 추가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18특별위원회 위원인 명진·강수훈·안평환·이귀순·이명노·채은지·최지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선강·주성학 기자

윤상원기념사업회 청소년 영상 공모전

(사)윤상원기념사업회는 29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을 지켜낸 윤상원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청소년 영상 제작 콘테스트(UCC)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청소년 문화예술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5·18 당시 '시민군 대대인'으로 활약한 윤상원 열사의 삶·정신을 주제로 한다.

광주·전남지역에 사는 초·중·고등학교생이라면 참여할 수 있고, 주제에 맞는 영상 창작품을 다음 달 20일까지 기념사업회에 제출하면 된다.

영상 분량은 5분 이내다. 심사를 통해 금상 1명 300만원, 은상 1명 200만원, 동상 1명 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윤상원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열사의 삶·죽음을 재조명하고 선양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했다"며 "후대에도 그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학동4구역 재개발' 뇌물 건넨 건설업자 집유

문흥식 전 부상자회장에 전달 위해 조합 임원에게 2억여원 교부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지장물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조합 임원을 거쳐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현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9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7)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2)씨와 C(55)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각종 공사를 수주하고 2019년 7월부터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뇌물 2억1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을 맡은 A씨는 조합 임원의

"돈을 줘야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에게 가져다줄 수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너에게 지장물 철거를 맡기지 않겠다"는 요구에 금품은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나상아 판사는 "A씨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거액을 교부한 경우, 그 액수에 비취볼 때 책이 가볍지 않다"며 "공익성이 큰 재개발사업의 공사 수주와 관련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약 12만16천43㎡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2천222세대를 건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이를 위해 철거공사 중 이던 5층 건물이 지난 2021년 6월 9일 도로 변으로 무너져 내리는 붕괴참사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문흥식 전 부상자회장은 지난 2016년

부터 2019년 7월까지 철거업체 3곳과 기반시설 정비업체 1곳 등 4개 업체로부터 '학동 4구역 선정 청탁'의 대가로 5억9천여만 원을 수수해 브로커와 나눠 가진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항소심의 형이 확정됐다. /안재영 기자

'졸음' 충돌사고 선장 등 5명 검찰행

잠에 취해 배를 자동조타 상태에 두다가 LNG 운반선과 충돌사고를 낸 선장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완도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선박과과, 선박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화객선선장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5천급 화객선 선장 A씨는 지난 2월 17일 완도군 여서도 해상에서 배를 몰다 LNG 운반선과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잠에 취해 자동조타 설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도=윤보민 기자

'정직 중 무단 진입' 노조원들 업무방해 '유죄'

"쓰러진 지부장 건강 확인" 주장 1·2심 법원 모두 기각

정직 징계 기간 중 쓰러진 노조 지부장을 만나기 위해 공장에 무단 진입한 노조원들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 등 노조원 4명에 대

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주소송 금속노조 B 회사 지부 소속인 A씨는 2020년 1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회사에 진입하고 노조원을 모아 시위하면서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

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지부장 등 노조원들은 2021년 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하며 개인 차량을 동원해 공장 출입문을 가로막거나 갈판 등을 쌓아 절거 농성을 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벌금 4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A씨는 "단식 중인 지부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내에 진입해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재영 기자

전남대 의대, 온라인 강의로 학사일정 재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학사일정을 재개했다.

29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원격 동영상 수업으로 이론 과목부터 원격 강의실 'e클래스'를 통해 수업을 시작했다.

전남대는 더 이상 학사일정을 미루면 실험 실습 등 대면 수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 이론 과목의 온라인 강의를 추진했다. 원격 수업은 실시간 화상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혼합 수업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교수들이 미리 제작한 수업 영상과 각종 참고 자료를 열람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온라인 강의 출석률 집계는 교수 권한으로 별도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의과대학은 731명 중 575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은 29일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출석 학생이 없을 것으로 전망해 휴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재학생 725명 중 533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수업시수를 채우는 데 힘들이지 않으려 예상돼 우선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자는 차원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다예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